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대표를 만나 '광주공장 재건 및 합병 이전 노사 합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강기정 시장 - 금타 노사, 공장이전 후속조치 논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대표를 만나 '광주공장 재건 및 합병 이전 노사 합의안'의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7월30일 발표된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에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김명선 부사장, 황용필 제1노조 대표, 강정호 제1노조 곡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화재 피해 광주공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 ▲생산량 유지 전제의 광주1공장 부분 재가동 ▲합병 빛그린국가산단 내 연 530만본 생산 1단계 공장 신축 ▲광주공장 부지 매각 때 광주1공장 합병 이전과 2단계 공장 신축 계획 등이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 노조와 면담,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 방문에서 약속했던

시·국회·정부·지역사회 참여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지원단' 구성
 광주 1공장 재가동·합병 신공장 건립 지원... 지역경제 회복 목표
 광주공장 부지 매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행정 지원 약속

'금호타이어 공장이전지원단(가칭)' 구성·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전 지원단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국회, 광주시의회, 광산구, 함평군 등 지역사회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력 기구'로, 조만간 참여 기관 의견을 수렴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금호타이어 경영진·노조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공장이전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1공장 재가동을 위한 부분 재건과 합병 신공장 신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금호타이어측이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대로 개발사업자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신속하게 추

진해 공장이전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도 광주시의 화재 수습 적극 지원과 이전지원단 구성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그동안 광주시의 전폭적인 물밑 지원 아래 경영진과 노조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지속적인 도움과 행정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용필 금호타이어 제1노조 대표도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신속한 공장 이

전으로 지역의 고용과 경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TF)'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호타이어 화재 직후 출범한 민·관합동특별팀(TF)은 경제, 고용, 환경·보건, 주민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와 관련기관, 각계 전문가, 시민 대표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공장이전 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광주시와 국회·지역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금호타이어 재건과 공장이전이 지역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독립·민주 지켜낸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광주역의 역사·미래 상징 '광주역'서 열린다

광주시, 15일 '스테이지'서... '기억에서 희망으로' 주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항일·반독재·민주주의의 광주의 80년 역사가 숨쉬고, 첨단산업·문화역량으로 청년들이 꿈꾸는 앞으로 80년의 미래가 담긴 '광주역 역사현장'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5일 오전 10시 광주역 수화물주차장 부지에 조성된 창업거점 빛고을창업스타이션(STA·G, 이하 스테이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독립유공자·유족(광복회원),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경축식은 '광주의 시간, 기억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항일·민주정신과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복 이후 광주의 80년을 기억하고,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첨단산업, 문화 역량으로 펼쳐갈 앞으로의 80년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특히 경축식이 열리는 창업거점 '스테이지(STA·G)'는 광주역 수화물주차장 부지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켜본 곳이다. 이곳은 올해 6월 청년창업·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과거의 기억을 품고, 도전을 넘어, 희망으로 비상하는 광주의 무대'라는 이번 경축식 취지와 부합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념사(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장)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민의 기억과 희망' ▲경축사(광주광역시) ▲기념공연(CBS소년소녀합창단·빛고을댄스)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경축식에서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른 시민들이 참여한 기념영상 '시민의 기억과 희망'이 상영된다. 광복의 의미와 미래 희망을 시민 목소리로 전하는 이 영상에는 육상선수 이재성을 비롯한 항일·민주운동의 어머니, 청년회복을 경축하고, 광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광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달아 경축 분위기를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경축식 현장에서만 확인

할 수 있는 특별연출도 예고했다. 기념영상 직후,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의 미래비전을 함께 그리는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민족정기 선양 등에 기여한 4명에게 대통령 표창(1명)과 시장 표창(3명)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고(故) 김형중 선생에게 추서된다. 김 선생은 1925년 전남 무안군 도초면에서 도초소작인회 회원으로 총독부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소작쟁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는 등 독립에 기여했다. 표창은 손자녀 김일량 씨(남·83세)가 받는다.

광주시장 표창은 직업상담사 활동으로 보훈가족 일자리 창출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후손 민승희 씨(여·46세), 지역경제 발전과 광복회 후원 및 기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양다빈 씨(여·34세),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면서 광복회원 복지증진 및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정다연 씨(여·57세)에게 수여된다.

기념 공연에서는 CBS소년소녀합창단이 '고향의 봄', 빛고을댄스사케이팝(K-POP) '골든'에 맞춰 댄스 무대를 선보인다. 광복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어린이들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미래 광주'를 표현하는 무대다.

이날 경축식 종료 후에는 광복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경축 음악회'가 열려, 축하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번 경축식은 광주시 유튜브 채널 '헬로광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광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14일부터 16일까지 시내버스·지하철·철도 무료 이용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정일석 자치행정국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광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광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달아 경축 분위기를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